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4년 3월 21일(금) 조간
담당자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02-3299-1061, siwook@kdischool.ac.kr) 김수진 KDI 전문연구원 (044-550-4015, sujin@kdi.re.kr)
배포일시	2014년 3월 20일(목) 09:3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KDI-UNIDO 2013년 산업발전보고서(IDR) 론칭 국제세미나 발표 요약

- 일 시: 2014년 3월 20일(목) 14:30~17:40
- 장 소: KDI 대회의실(6층)
- 주 최: KDI · UNIDO
- 후 원: 기획재정부

□ KDI는 3월 20일 UNIDO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과 구조개혁의 역할' 주제의 「2013년 산업발전보고서(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3) 론칭 국제세미나」를 개최, 지난 40년간 제조업이 고용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구조 변환을 통한 지속적인 고용창출 방안을 모색함.

○ UNIDO의 대표 보고서인 산업발전보고서(IDR)는 혁신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이슈에 관해 시의성 있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음.

- UNIDO 및 각국 전문가들이 2년에 걸쳐 작성한 **금번**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주목 받고 있는 고용안정성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구조 개혁의 동인과 선결과제,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고 있음.
- 국제세미나는 저성장, 저고용 극복과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세미나는 'UNIDO 산업발전보고서의 주요 분석결과 소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종합 토론' 등 3개 세션으로 진행

- 루도비코 알코타 UNIDO 정책연구실장은 제조업 분야 구조개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구조개혁에 바탕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금융, 통신, 전문직 서비스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
- 노부라 하라구치 UNIDO 정책연구관은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요건을 설명하고, 특히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의 소통을 활성화 하는 것이 산업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필수적이라고 말함.

□ 김준경 KDI 원장, 차문중 기획재정부 부총리 선임자문관, 루도비코 알코타 UNIDO 정책연구실장, 노부라 하라구치 UNIDO 정책연구관, 한진희 가천대학교 교수, 임원혁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이수택 UNIDO ITPO Korea 대표, 김원규 KIET 선임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가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 **첨부 1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14:30~15:00	등록
15:00~15:20	개회식 개회사 김준경 KDI 원장 축사 차문중 기획재정부 부총리 선임자문관
15:20~15:40	발표 1. UNIDO 산업발전보고서의 주요 분석결과 소개 발표자 루도비코 알코타 UNIDO 정책연구실장
15:40~15:55	발표 2. 선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발표자 노부라 하라구치 UNIDO 정책연구관
15:55~16:10	토론 토론자 한진희 가천대학교 교수
16:10~16:30	휴식
16:30~17:20	종합 토론 사회자 루도비코 알코타 UNIDO 정책연구실장 토론자 한진희 가천대학교 교수 임원혁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이수택 UNIDO ITPO Korea 대표 김원규 KIET 선임연구위원
17:20~17:40	질의 응답

❖ 첨부2. 발표요약

발표 1. UNIDO 산업발전보고서의 주요 분석결과 소개

루도비코 알코타 UNIDO 정책연구실장

- 경제 구조개혁은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의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며, 제조업은 이러한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제조업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자본 축적, 규모의 경제 활용 및 새로운 기술체화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님.
 - 국제적으로 2009년 현재 제조업 분야 고용자는 총 4.7억 명이며, 이는 총 고용의 1/6에 해당
- 단, 국가별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의 고용창출 경로 및 영향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임.
 - 저개발 국가들의 산업발전은 식품, 음료, 섬유제품 등 주로 저기술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저기술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용이
 - 반면,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고기술군 제조업의 확대로 고용창출의 원천이 제조업에서 금융, 통신, 전문직서비스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전환
 - 자본집약·노동절약적 특성을 지닌 고기술군 산업군의 확대로 제조업 내 고용창출력이 약화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는 혁신적인 지식과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저기술군 위주의 제조업에서 고기술군 제조업으로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동인이 필요

- 전통적으로 구조개혁의 주요 동인으로 여겨져 온 생산비용 절감, 기술혁신은 물론 인적자원 개발, 국제무역 활성화 등은 구조개혁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의 필수 요건임.
- 특히, 고용 창출력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공정혁신 (process innovation) 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제품혁신이 효과적임.

발표 2. 선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노부라 하라구치 UNIDO 정책연구관

-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구조개혁을 산업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정부는 네 가지 역할을 통해 목표달성을 촉진
 - 관세, 보조금 및 기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규제자(Regulator)
 - 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민간, 정부에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금융업자(Financier)
 - 국영기업 등의 설립을 통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자(Producer)
 - 전략산업에 대한 조달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는 소비자(Consumer)

- 산업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산업화의 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함.
 -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이고 진입 장벽이 낮은 제조업 육성에 산업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중진국 단계에서는 경제구조 다변화·선진화를 통해 제조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정책이 필요함.
 - 선진국의 산업정책은 차별화된 기술 혁신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함.

- 정부는 구조개혁을 위해 국제무역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 등 구조개혁의 동인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여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업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확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함.